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反정부 시위 개최 예정

'19. 11. 9일(현지시간),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오는 '29. 11. 16일(현지시간) 촉발할 예정인 반(反)정부 시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 50개 이상의 국가에 합법적인 베네수엘라의 수반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주도인 라라(Lara)주에 위치한 지역 시장을 방문해 군중 집회를 개최했으며, 동 집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反)정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19. 11. 16일(현지시간)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은 삼색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 우리의 성탄절을 되찾아야만 한다. 본인 역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며, 자국 야권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역주) 삼색기는 베네수엘라 국기를 의미한다.

이어,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우리는 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고 누려야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권의 탄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민, 야당 관계장, 사회운동가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점에 감사를 표했으며, 각 사회 계층의 단합만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